

외국인투자유치 공조체제



정부와 지자체, KOTRA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해외 IR(Investor Relations, 투자설명회)을 앞으로는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해외 IR 등 외국인투자

홍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3.24(수) 정부부처·지자체·KOTRA와 함께 「외국인투자홍보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그 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 200여회 이상의 해외IR 활동을 실시

【 외국인투자홍보협의회 】

▷ 구성 : 지경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KOTRA(사무국)

▷ 주요 협의사항

- 범정부 차원의 통합 홍보 및 IR 계획 수립
- 분기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IR 조정
- 해외 기획 IR 등에 대한 사전 홍보
- 투자유치기관간 IR정보 공유 및 연계
- 한국투자 홍보대사 위촉 등

하였다.

그러나, 홍보활동이 유관기관별 산발적·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에 한계가 있고,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부족으로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관기관들이 외국기업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과당 경쟁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협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우리 지자체의 경쟁적 접촉과 투자유치 협의요청으로 인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담감을 주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투자협상 테이블에서 외국기업의 협상력만 높여주는 역효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IR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10.2.23,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포함한 「2010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의결하였다.

3.24(수) 개최된 협의회 1차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투자유치활동(IR)의 과도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최 시기와 지역·유치업종이 유사한 투자유치 사절단의 해외 중복파견을 지양하고, 가급적 합동 IR를 실시한다.

해외 합동IR 先例로서, 지난해 지경부는 외국 금융투자사의 국내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IR을 준비중이었고, 이와 별도로 기재부도 민자사업(BTL) 해외 IR 계획이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IR 대상이 모두 외국 금융투자사라는 점에 착안, 합동으로 IR 실시 ('09.5월, 홍콩·싱가폴)하였다.

지경부와 8개 지자체는 '09.11월 북경과 상해에서 중국 투자자 대상으로 대형 지역개발사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앞으로 지경부와 KOTRA는 同 협의회에서 조정·권고한 합동 IR을 최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합동 IR 비용의 일부 지원도 검토 중이다. 현재 KOTRA는 지자체가 파견하는 투자유치단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중(매년 60회 내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관기관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유관기관의 IR 관련 홈페이지간 배너·링크 등을 통한 연계를 강화하고, IR 개최 후 해외 투자자의 관심사항 등 다른 기관이 참고할 만한 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투자국에서 우리나라 투자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외국 주요인사 중심으로 “한국투자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홍보대사 위촉을 추진키로 하였다. 미국·유럽·일본·중화권·중동 등 대규모 투자국의 현지 주요인사들이다.

향후에도 국내 외국인투자 유관기관과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 홍보 및 유치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고 외국 투자자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